

대전·세종·충남 폭염 대응 특별기상관측 실시

- 관측환경에 따른 폭염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관측 수행

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경희)은 오늘(7월 31일)부터 8월까지 한 달간 대전·세종·충남 지역의 폭염 취약지역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특별기상관측을 실시한다.

폭염특보가 발표되거나, 최고기온이 31℃ 이상 예상되는 지역(대전, 세종, 논산 등)에서 2~4일 연속으로 기상관측차량*을 이용해 기온, 습도, 바람(풍향·풍속) 등 기상요소를 관측할 예정으로, 오늘(7월 31일)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특별기상관측을 실시하였다.

* 관측 공백지역 및 재난현장의 기상관측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이동형 기상관측차량으로, 기온·습도·풍향·풍속·강수량 등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.

이번 특별관측은 건설현장, 운동장, 농지, 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상관측을 수행하고, 각 지역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(AWS)의 관측값과 비교·분석을 통해 일상 속 폭염 취약지역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한 대전·세종·충남 지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폭염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.

붙임 특별기상관측 관련 사진 1부

담당 부서	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	책임자	과 장	한상현 (042-363-3560)
		담당자	주무관	이정섭 (042-363-3563)



폭염 특별기상관측을 수행 중인 기상관측차량(대전광역시 중구)